2024년 대입, 의·치·약학계열 '지역인재' 확대

전남대·조선대 지역인재전형 모집비율 60% 상향…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학생 유리할 듯

내년 고등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는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발표한 '2024학년도 시행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에서 의·치·한의·약학·간호계열에 대한 모집 인원 확대다.

광주·전남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 부문이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치·한의·약학·간호계열 의무선발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전년 대비 2581명 증가한다.

2022학년도 2만783명에서 2023학년도 2만1235명, 2024학년도 2만3816명이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의 분석에 따르면 전남대와 조선대가 의·치·약학계열 지역인재전형 모집비율을 60%대로 늘렸다. 이들 대학은 수능 최저등급도 하향해 사실상 진입장벽을 낮췄다.

광주시교육청 진학담당은 "의·치·약학계열에서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 될 지역인재 정원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며 "전남대와 조선대, 원광대가 광주·전남북 출신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의 경우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전형을 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라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의·약학계열 수시에서 지방권 학생이 매우 유리하고, 정시에서는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지방대 의·약학계열에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균형전형을 축으로 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도 크게 늘어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6434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2372명 증가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권고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전형)도 전년 대비 모집인원이 총 2997명 늘어난다.

2024학년도부터는 시행령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을 정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인재, 특성화고 졸업·재직자, 서해5도학생, 보호종료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한편, 2024학년도 전국 196개 대학의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4828명 줄어든다. 수도권 대학은 525명 늘어난 13만2307명을 선발하지만, 비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이 21만1989명으로 5353명 감소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동구 '달빛시티투어' 재개

대구 관광객, 빛고을 문화 체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멈췄던 '광주 동구-대구 달빛시티투어'가 재개됐다.

26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역 관광객 20명이 동구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 투어 프로그램인 '광주 동구-대구 달빛시티투어'에 참여해 광주 나들이에 나섰다.

달빛시티투어는 대구 시민이 광주를 찾아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보는 당일치기 여행상품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했다가 올 초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다.

탐방코스는 ▲동구힐링 ▲동구역사 ▲동구 젊음 ▲충장축제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이번에 실시된 '동구힐링 코스'는 무등산 증심사 일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동명동 카페의 거리를 둘러보는 일정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선푸른길더하기시민회의가 26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결성식 및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송정역 철로, 폐선·지하화로 '푸른길' 만들자"

시민단체 토론회 "시설 노후화로 운행 이익보다 시민불편 커"

서울·부산 등 국비로 추진…'폐선 난색' 광주시 태도 변화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선' 개통 100년을 맞아 철로를 폐선 또는 지하화하고 녹지화하자는 제안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향후 달빛철도(광주~대구) 개설을 염두에 두고 폐선에 난색을 보이는 광주시를 향해선 "경의선 숲길 등 지하화해 공원으로 만든 사례가 있고, 부산에선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광주선푸른길더하기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6일 전일빌딩 245에서 결성회를 갖고 광주선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회의는 "철길에 미래 가치를 담을 때가 됐다. 광주선 철도가 꼭 필요하다면 지하로 옮기고, 필요없다면 폐선해 녹지를 조성, '광주선 푸른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선은 광주역~광주송정역을 잇는 11.9㎞ 길이의 선로로, 지난 1922년 개통했다.

시민회의는 광주선이 노후화하면서 운행 이익보다 시민 불편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광주역~광주송정역 구간은 매일 통근열차 30편과 무궁화·새마을호 20여 편 등 하루 평균 50여 편의 열차만 운행되고 있다. 통근열차만 해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0명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물론, 운영 적자를 이유로 광주시가 한국철도공사에 매년 15억 원의 지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주선은 단선 철도로, 마주보고 운행하는 두 열차가 있을 경우 한 열차를 역·신호장에서 대기시켜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철로 주변으로 도시 개발이 대부분 진행돼 지상 복선화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시민회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이 주제 발제를 맡아 세가지 광주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광주역~광주송정역 전 구간을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전 구간 지하화' 방안, 전 구간을 폐선하고 푸른길처럼 선형 공원을 만드는 '전 구간 폐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 경전철과 KTX 구간을 나눠 KTX가 지나는 구간만 지하화하는 지하화·저상철로·고가철로 복합 방식도 제시했다.

한편 시민회의는 광주역철길푸른길조성주민대책위를 비롯해 29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6·1지방선거 정당별 후보자에게 광주선 푸른길 조성 목소리를 내고 시민 100인 원탁토론회, 주민 간담회, 정책 발굴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4월 폭우' 200㎜ 쏟아졌다

거문도·흑산도 등 섬지역 강한 비…4월 강수기록 경신

25~26일 사이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200㎜의 비가 내려 곳곳에서 역대 '4월 강수 기록'을 경신했다.

2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이틀 간 광주에는 최대 36.5㎜, 전남에는 80~90㎜의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진도(80.2㎜), 흑산도(78.7㎜), 강진(66.3㎜) 등지에서 4월 하루 최대 강수량을 경신했다.

또 거문도·소리도에는 200㎜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도서지역 전반에서 100㎜를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강한 비로 4월 1시간 최다 강수량을 경신한 지역도 속출했다. 흑산도는 시간당 43.8㎜의 비가 쏟아졌으며, 진도(41.3㎜), 강진(34.8㎜), 순천(21.1㎜), 보성(30.6㎜), 광양(18.3㎜), 영광(15.5㎜) 등지에서도 4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저기압 전면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강한 남풍을 타고 유입되고,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져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 9~15도, 낮 최고기온 19~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기념재단, 5·18왜곡 대응 활동 강화

온라인 게시물 155건 삭제·178건 방통위 심의 중

5·18기념재단이 올해 인터넷 상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 155건을 삭제조치 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를 확산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허위조작 정보 게시물 155건을 삭제 조치했으며, 178건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삭제 조치 완료된 게시글의 내용별 분류를 보면 '폭동'이라고 왜곡한 글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군 개입'이라는 왜곡은 9건이었다. 심의중인 178건에서는 '폭동'이라고 왜곡한 내용은 110건, '북한군 개입'이라는 왜곡은 29건에 달했다.

재단은 또한 법원에서 출판 및 배포 금지 명령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전국의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중 18곳의 도서관에 해당 도서의 대출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재단은 시민들의 5·18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 '5·18TV'를 운영하는 한편 방송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연구소 팀장은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허위조작 정보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법률검토와 법적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